

이기는 삶

인재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한 시대가 부흥하고 성하는 것은 인물이 있기 때문이요, 쇠퇴하는 것은 유능한 보좌가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완전한 인물은 없다. 적합한 자리에 기용해 인재로 키워야 한다. 절절한 사람도 없다. 적당한 일을 맡겨 능력을 키워야 한다.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는 것이 인재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래야 탐욕스런 사람이든 청렴한 사람이든 다 쓸 수가 있다.”

다른 사람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1447년 세종 6년에 당시 18세였던 강희맹이 과거 시험장에서 세종이 출제한 인재활용에 관한 문제에 답한 내용이 다. 참으로 가슴에 새겨야 할 선조의 가르침이다. 작은 흠과 물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태산과 대양(大洋)이 만들어진다. 나와 다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는 큰 그릇이라 하겠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의견을 조율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발전하지 않는다.

정승 집안에 정승이 나고 백정 집안에 백장난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란 각자의 타고난 천성은 버리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 하나 잘못 들어서 집안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자식을 훈인시킬 때에 꼭 집안의 내력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하였으며 자식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부모가 정해진 사람

과 얼굴도 모른 채 혼인을 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원칙적인 면에서 두루 인재들을 포용하되 일을 맡김에 있어서는 청탁(淸濁)을 가려야 한다.

성공의 비결 중의 하나가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을 기용하여 일을 맡기는 것이지만 인간의 오만은 성공의 운을 끊어버린다.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 남의 말을 듣지 않으니 실수를 고칠 수 없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도 내 주위에서 멀어지고 성공과 행복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매일 매일 경계하고 뽐아버리지 않으면 잡초처럼 무성해지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어렸을 때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어온 경구이다. 그런데도 잘 되지 않는다. ‘복은 근심하고 조심할 때 오고 화는 기고만 장하고 자만할 때 온다.’는 중국 속담을 되새기며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

능력이 좀 모자라더라도 인성이 갖추어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기업의 미래를 위하여 더 낫다. “80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일을 맡기기에 충분하다. 60% 전파와 확신이 있다면 그 판단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60%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그 사람의 열의와 용기 그리고 실행력에 달려 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인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말이다.

태도가 올바르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재능 습득과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능은 뛰어나지만 태도가 불량한 사람이나, 열정은 뛰어나지만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은 사고뭉치 문제아로 전락하기 쉽다. 능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주도면밀하다. 생각난다고 저질러 버리는 사람은 열정이 넘치고 추진력이 있어 보이지만 시행착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인재 필요

인적자원관리의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다. 재능보다는 태도를 우선해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전문 경영인들은 잘 알고 있다. 자신이 똑똑하고 잘라서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관찰시키려 하다가는 상사 및 동료들과 불화하게 되고,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모두가 멀리하게 되어 결국 그는 왕따가 되어버린다.

명문대 출신으로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것이 채용(採用)의 기준 같지만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면접을 보는 이유가 그 사람의 학벌이나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들을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인성을 보는 것이다. 회사가 원하는 인재는 똑똑하고 잘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부족하더라도 겸손하고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 이것이 회사가 절대 말하지 않는 인재 채용의 원칙이다.*

수타와 요가 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혈관과 관절은 중장년층 건강의 적도다. 관절이 튼튼해야 움직임이 자유롭고 혈관도 건강하다. 관절과 혈관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나이가 들어도 늘 청년처럼 마음도 몸도 부지런하게 하나님처럼 살고,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하며 적정 칼로리 안에서 5대 영양소(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다. 이제 건강한 마음 건강한 몸으로 겉과 속 건강 모두를 챙겨보면 어떨까?

때, 기쁘고, 감동받을 때부터는 요가

요가의 의학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호흡계이고 이 호흡계를 담당 하는 기관이 폐와 기관지다. 감상선은 호르몬 담당 운할유와 같다. 이 호르몬이 좋아야 관절염이나

전립선염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목 부위에는 심신의 균형 유지와 창의력을 키우는 데 좋다. 가슴을 활짝 열고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동작을 할 때 자극 부위인 폐 기관지 등에 의식을 집중해서 수련한다.

코브라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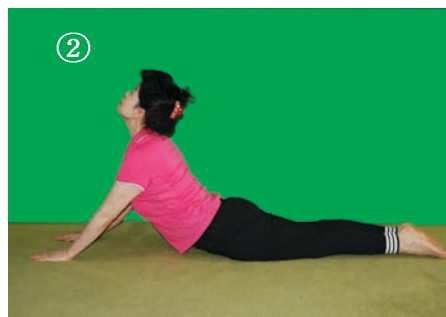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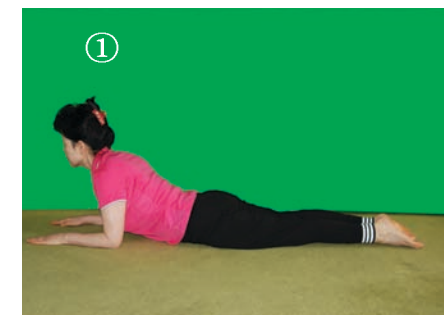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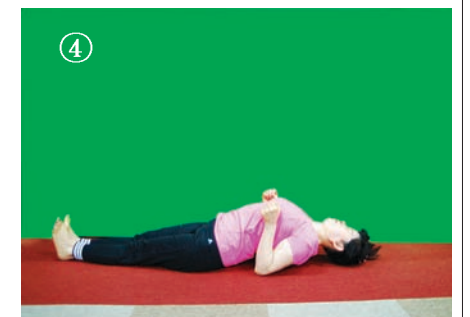
동작①: 엎드린 자세로 다리를 쭉 펴서 모은다. 팔꿈치와 손바닥을 가슴 옆에 놓는다. 숨을 마시면서 가슴을 위로 올린다.

동작②: ①번에 자세를 이어서 숨을 마시며 팔꿈치를 쭉 펴면서 가슴, 목을 끌어 올려 고개를 뒤로 젖힌다. 10초 유지. 5회.

동고기 자세

동작③: 등대고 누워서 양발은 모으고 두 손을 엄지를 안으로 넣고 주먹을 쥔다. 팔꿈치를 구부려 가슴에 댄다.

동작④: 숨을 내쉬면서 양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 가슴을 올리고 고개를 젖혀 머리의 정수리를 바닥에 닿도록 한다. 가슴을 활짝 열어 척추 뼈가 하나 하나 퍼지는 느낌으로 유지하면서 깊고 고른 숨을 쉬며 자신의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해 유지한 후 천천히 처음으로 돌아온다.*



도덕경 해설

爲大於其細

위대어기세 큰일을 하려거든 작은 것에서부터 하라

도덕경 63장 해설

세상에 태어났으면 뭘가를 하며 살아야 한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마찬가지다. 죽은 것이나 힘이 없지 살아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뭘든 간에 살기 위한 필연적 힘이 따른다. 이러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함(작용)은 살고자 하는 본능의 발로이다. 이 본능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모든 생명체에게는 영원성(永遠性)이라는 것이 본시부터 내재되어 있지 않고서는 다른 설명이 불가(不可)하다라는 것이다. 우주 만물의 생명의 역사가 오랜 옛날부터 시작되어 오면서 살다가 죽지 않는 존재가 없었지만, 희한하게도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살기 위해 최후까지 발버둥을 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데 도 불구하고 죽는다. 과연

생명이라는 것에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일까? 그 해답을 새로운 차원의 도덕경의 해설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삶과 죽음이 순간순간 교차하는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실상을 살펴보면, 죽어간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고,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한 지능과 방법과 변화가 필요했다. 어떻게 하여야 살아남을까 하면서 모든 생명체는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면서 자신을 강화시켜 왔던 것이다. 그것을 작자생존의 법칙이라 정의 내리고 있다. 식물의 세계를 들여다봐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처절할 정도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말할 것도 없다. 인간의 살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늘날 문명과 문화를 낳았고, 또 도(道)가 나오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도는 다름 아닌 인간이 죽기 싫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지식의 습득과 그 방법을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행위인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은 바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자유롭게 생명을 지켜나가고, 더 나아가 그 생명을 온전히 보존해서 길게 연장해 나갈까 하는 문제에 대한 지침서인 것이다. 노자의 도를 공부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중요하고도 분명한 목적을 성취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달리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 인생들이 제일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니고, 우주에 하나뿐인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온전히 간직하는 삶과 행위의 도를 습득해 나가는 데에 있다 하겠다. 그 길을 여기에 실고 있는 것이다.

爲無爲(위무위): 행하되 함이 없이 행하고

事無事(사무사): 일하되 일함이 없이 일하고

味無味(미무미): 맛보되 맛을 느끼지 않고 맛본다.

大小多少(대소다소):

크든 작든 많은 적든

報怨以德(보원以德): 원한은 덕으로 갚고

圖難於其易(도난어기이): 어려운 일을 피하려면 쉬운 것에서부터 하고

爲大於其細(위대어기세): 큰일을 하려거든 작은 것에서부터 하라

天下難事必作於易(천하난사필작어이): 천하의 어려운 일은 필히 쉬운 것에서부터 만들어지고

天下大事必作於細(천하대사필작어세): 천하에 큰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만들어진다.

是以聖人終不爲大(사이성인종불위대): 그래서 성인은 결국 큰일을 피하지 않으므로

故能成其大(고능성기대): 고로 큰일을 능히 이룬다.

夫輕諾必寡信(부경낙필과신): 대저 가볍게 하는 대답은 반드시 믿음이 부족하고

多易必多難(다이필다난): 너무 쉬운 것은 반드시 어려움이 많다

是以聖人猶難之(사이성인유난지): 그래서 성인은 오히려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에

故終無難矣(고종무난의): 그런 고로 결국 어려움이 없다.*

김주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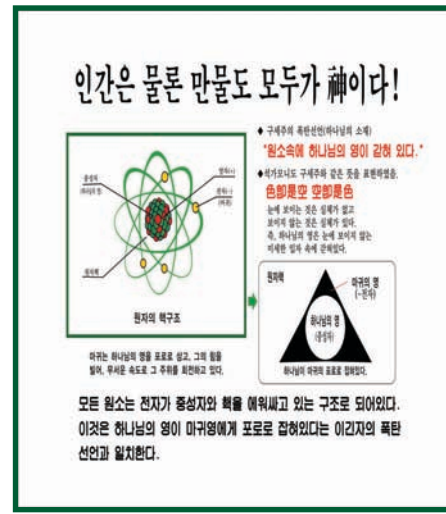
허만욱 승사 칼럼

인간은 물론 만물도 모두 신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미처 깨달을 수 없게 도덕같이 임하신 이진자께서, 철학 같이 어렵던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시기 시작한 지 이미 30여 년이 흘렀다. 이진자는 첫째, 인간의 조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인간의 사망의 원인은 피가 썩는 데 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인간을 비롯한 이 세상 만물이 모두가 신이라는 사실을 밝히셨다. 둘

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그 중심에 핵과 중성자가 있고, 그 주위에서 전자가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마귀 속에 감혀있는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처럼 이 세상 만물이 모두가 신인데, 그들은 하나같이 진동하면서 존재하는 파동을 지닌 에너지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 항상 고

정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인체나 각종 물체들도 그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몸은 에너지 덩어리로 항상 파동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모든 세상은 물론 각종 장기가 저마다 고유 파동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것을 근거로 하는 파동의학이 세상에 발전하고 있으니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비야호로 수술, 극약처방 등의 위험성을 배제하는 희망적인 새 시대의 의학의 조류가 박두하고 있는 듯하다. 진리에는 반드시 매서운 비판의 역풍이 동반하는 법이니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참된 인간이 되기도 어려운 법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되는 일에 서라.*



이진자(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10-9261-9974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53)474-7900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울산제단 : (052)291-1849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포항제단 : (054)292-5455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63)533-7125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43)233-6146

충주제단 : 010-9980-5805
橫濱祭壇 : (045)261-6338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久留米祭壇 : (0942)21-4669

岐阜祭壇 : (0584)32-1350
大阪祭壇 : (06)6451-3914
神奈川祭壇 : (045)451-3150
Philadelphia : (215)722-2902
London : (0208)894-1075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